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강차선¹, 정민², 염순정¹, 박정환^{1*}
¹제주대학교 교육학과, ²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The impact college students' sexual assault awareness has on the sexual assault experience : Mediating effects of the sexual violence allowance scale

Kang, cha-sun¹, Jung, Min², Yoem, Soon-Joung¹, Park, Jeong-hwan^{1*}

¹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도 및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위치한 4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408명이었으며, 성폭력 인식도척도, 성폭력피해경험척도, 성폭력 허용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과 역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성폭력 인식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와 성폭력 피해는 낮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가 매개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으로 나누어 실시한 결과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고, 성폭력 허용도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완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이 선택되었다. 즉, 성폭력 허용도가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성폭력 허용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폭력 인식도가 잘 정립될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낮아지고, 결국 낮아진 성폭력 허용도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감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이 개인의 성폭력 허용도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인권적으로 성숙해지고, 정서적으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일반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in relation to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sexual assault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The subjects were 408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Jeju island. Sexual assault awareness measures, sexual violence experience scale, and the scale of sexual violence allowance scale were used in the questionnaires. First,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violence awareness and sexual violence. Also, sexual violence awareness and sexual violence allowance scale showed a considerable negative correlation.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sexual assault awareness, the lower the sexual damage and sexual violence allowance scale. Second, after analyzing the division of the subject into research model and competition model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in relationship of the sexual violence awar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t was clear that sexual awareness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he experience of sexual damage. It rather mediated the sexual violence allowance scale. Therefore, the research model, which is the full mediation model, was selected. In other words, sexual assault awareness appeare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assault awareness and sexual assault experience. This means that sexual assault perception has an indirect influence through sexual assault allowance rather than a direct effect on the sexual assault experience. Thus, the more well established that sexual assault awareness is, the lower the sexual assault allowance scale. Finally, the lowered sexual assault allowance scale could reduce the sexual assault harm. To improve the sexual assault recognition, a systematic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Sexual assault prevention education would allow students in dating relationships to become mature in their human rights and maintain the proper emotional relationship and enable a reduction in the harm sexual assault as a result of giving them the consideration. Finally, this study had a limitation in selecting the subjects as the college students living in Jeju. Therefore,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is limitation, follow-up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on with a sample of generalized and various research subjects.

Keywords : dating, sexual violence experience,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Sexual assault awareness, university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Park, Jeong-hwan(Jeju National University)

Tel: +82-64-754-2167 email: edu114@jeju.ac.kr

Received June 8, 2016

Revised (1st September 8, 2016, 2nd December 5, 2016, 3rd December 7,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1. 서론

발단단계에서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며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성에 대한 호기심 및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는 20대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인터넷 발달과 글로벌 세계화로 서구의 성개방 풍조가 급격히 유입 됨으로 인하여 성에 관한 사회현상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1], 성개방과 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성적활동이 활발해지는 대학생들은 이성교제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 기술을 형성하기도 한다[2]. 그러나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데이트 상황에서 서로 성적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이 다를 때 일어날 수 있는 성적 갈등이나 원치 않는 성관계등의 데이트성폭력과 같은 결과로 나타나며[3], 이는 데이트 폭력은 남성과 여성 간의 구조적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폭력으로 육체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적, 언어적 폭력도 포함한다. 또한 이성교제에 대한 개방의 활발해지면서 데이트 성폭력 발생률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대학가에서 잇따라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육부는 '대학생의 성 인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아주대학교에 위탁 조사(2015년 11월)한 결과 전국 150여개 대학교 재학생 1,441명(남 : 652명, 여 : 789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중 가해경험에서 데이트 강간(4.0%), 신체적 성추행(2.1%), 언어적 성희롱(35%), 신체적 성추행의 유형별로 보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키스, 포옹, 몸을 만지는 행동(3.3%), 권위를 빌미로 신체접촉 요구(0.8%), 언어적 성희롱인 경우, '외모에 대한 성적평가, 모욕 또는 음담패설 한 경험'(45.6%), 그리고 비언어적 성희롱 가해 경험으로는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지나친 관심과 집착을 보이거나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반복하는 경우'(4.2%), 성적 모욕을 주거나 여성비하적인 프로그램 및 게임을 했다(3.3%),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했다(2.7%), 순으로 나타냈다[4].

이러한 대학생의 성적 가해 경험은 이성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낸다. 특히 데이트 성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나 피해자 역시 데이트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결과적으로 데이트 성폭력을 예방,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1,5]는 것이다. 이는 이성교제 상황에서 자신의 성

적행동들이 성폭력이 될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성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6],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1].

성폭력 허용도란 이성교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적행동을 허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성행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말하며[2,5,7,8,9], 그들의 자율성 정도와 사회, 문화적 환경이 성폭력 허용도를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2,9,10]. 성폭력 허용성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성숙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고[2],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인식도란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그 행동이 데이트 성폭력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11]. 예컨대, 이성교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성적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인지 수준[12]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데이트 성폭력인 경우 피해자 혹은 가해자 스스로도 피해나 가해 사실을 성관계나 성 접촉으로 생각 할 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12]는데 있다. 이는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성폭력 인식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되고[6],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7,14]. 특히 데이트 성폭력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연속선상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9]때문에 성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성폭력 허용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성폭력 인식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폭력 인식도가 높음으로 해서 성폭력 피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 경험, 그리고 성폭력 허용도와 성폭력 피해경험은 각각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세변인들 간에 구조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탐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과는 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고, 두 변인간의 매개하는 변인으로 성폭력 허용도를 선정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성폭력 허용도가 매개하는가?

다음은 본연구의 필요한 선행연구이다.

1.1 선행연구

성폭력 허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국외의 연구를 보면 Riss[10]는 혼전 성폭력 허용성에 대한 자율성 이론(autonomy theory of permissiveness)을 제시하였고, Kelly[9]는 성폭력 허용성 개념을 정립한 이후 청소년의 성폭력 허용성과 가족 요인간의 관계연구[15], 성폭력 허용성과 성태도간의 관계연구[16], 그리고 Cooper et al.,[17]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 음란물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사이버 섹스 중독, 성폭력 허용이 높았다. 등이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구문화의 유입과 성개방 풍조의 확산되면서 성폭력 허용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Lee · kang[1]은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폭력 허용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데이트 성폭력경험이 높음을 제시[14]하였으며,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는 가족관련 요인인 가족기능과 부모의사소통의 량[2,18], 방임,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부모와 가정에 대한 열등감, 가정폭력 노출[20], 남녀 모두 포르노 자극에 노출될 경우 공격성행동 경향성이 더 증가[2,19,21]했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버 음란물접속 횟수 및 시간에 따라 사이버 섹스 중독 등이 성폭력 허용에 있어서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22]하였다. 또한 남녀 성별에 있어서 성폭력 허용도는 학년이 높을수록[2,18,19,22]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허용적임을 제시[23]하였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성폭력 허용도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여학생보다 더 허용적[23]이었으나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남학생보다 더 허용적임[14]을 제시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폭력 허용도는 물리적 성폭력보다 정신적, 언어적 성폭력이 더 허용적이었음을 제시하였다[22]. 또한 Yang & Shin[24]의 연구에서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남녀 학생의 폭력 가해와 쌍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폭력에 대한 태도가 실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피해 감소 예측 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가지

고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허용도에 어느만큼 작용하여 성폭력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도식

다음은 본 연구의 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 검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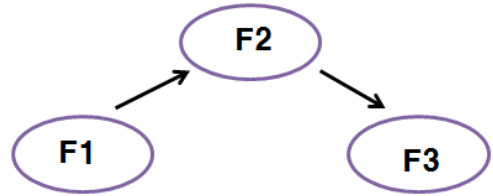


Fig. 1. A Study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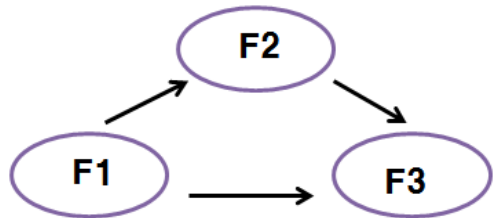


Fig. 2. Competition model

F1 : Sexual assault awareness, F2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3 : sexual violence experience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대학생들의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제주지역 4개 대학(J 대학교, H 대학교, K 대학교, HB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받았으나 무응답과 불성실 응답으로 판명된 192명의 자료를 제외한 408명(남 : 127명, 여 : 281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조사는 각 대학의 교양강의 시간에 교수님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 준후 조사를 의뢰 하였고, 설문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보장, 익명처리, 연구목적에만 사용 등을 설명 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성폭력 인식도 15문항, 성폭력 허용도 10문항, 성폭력 피해경험 11문항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1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그 행위가 데이트 성폭력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정도로서 Sugarman (1996)이 개발하고, 남현미(2003)가 사용한 도구를 강희순(2009)이가 수정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10문항이고, 5점 척도이며, 도구의 신뢰도는 남현미(2003)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7이며, 강희순(2009)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이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값이 .92로 나타났다. 요인은 데이트강간, 데이트성추행, 데이트 성희롱으로 구성되었다.

2.2.2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 척도는 Foo와 Margolin(1995)이 개발하고 박미란(2007)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박미란(2007)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허용도 도구는 물리적 성폭력 허용도, 언어적·정신적 성폭력 허용도로 구성되었다.

2.2.3 성폭력 피해경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장윤경(2002)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의 5점 척도로서 점수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장윤경(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도구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 심리적·언어적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구성되었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도의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피해경험 간의 직·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18.0과 AMOS 20.0의 다변량 정규분포성(multivariate normality) 검증절차를 통해 관측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분포성과 변인별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델 적합도는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ML) 절차를 적용하여 적합도 지수인 χ^2 값(=CMIN), GFI(goodness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Index)를 통해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먼저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와 관측변수간 상관관계는 다음<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인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피해경험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었다.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 그리고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3.2 성폭력 허용도 매개모형

3.2.1 측정모형 검증

[table 2]는 모형적합도로서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먼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리하여 설정한 다음 설정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chi^2(N=408)=23.75(df=11)$, GFI=.983, TLI=.984, CFI=.992, RMSEA=.05를 비롯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변인들은 모두 이론 변인들을 잘 구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추정 가능성이 이론적으

Table 1. Relationship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result (N=408)

	F1	F1-1	F1-2	F1-3	F2	F2-1	F2-2	F3	F3-1	F3-2
F1	1									
F1-1	.90**	1								
F1-2	.92**	.71**	1							
F1-3	.94**	.75**	.86**	1						
F2	-.36**	-.32**	-.34**	-.33**	1					
F2-1	-.29**	-.29**	-.26**	-.25**	.90**	1				
F2-2	-.35**	-.29**	-.35**	-.34**	.92**	.65**	1			
F3	-.19**	-.17**	-.18**	-.18**	.34**	.25**	.37**	1		
F3-1	-.16**	-.16**	-.14**	-.14**	.34**	.27**	.35**	.91**	1	
F3-2	-.19**	-.16**	-.19**	-.19**	.30**	.20**	.34**	.94**	.71**	1
M	3.96	4.32	3.74	3.81	1.57	1.48	1.66	1.18	1.14	1.21
SD	.70	.84	.71	.72	.59	.60	.69	.48	.48	.56
W	-.85	-1.17	-.34	-.58	1.83	2.14	1.28	4.04	4.38	3.71
K	1.11	1.13	.36	.72	5.49	6.92	2.15	20.17	22.00	15.62

*** p<.001, ** p<.01, * p<.05.

F1:Sexual assault awareness, F1-1:rape, F1-2:sexual molestation, F1-3:Sexual Harassment, F2: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1: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2:physic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3: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1:Physic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2: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을 측정 한 결과 $\chi^2=24.48(df=12)$, $p>.017$, GFI=.983, TLI=.986, CFI=.992, RMSEA=.05 로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적의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선별하고자 앞에 제시한 경쟁모형을 검증하여 비교한 적합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서로 내포(nested)관계에 있는 연구모 형과 경쟁모형의 차이구명을 위하여 χ^2 값을 비교한 결 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역시 0.73으로 유의 하지 않고 연구모형의 자유도가 1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모형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연구(노경섭, 2015) 에 따라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하였다. 완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경 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해 보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 두 GFI, CFI, TLI 모두 .90이상이고, RMSEA도 .05로서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세하나마 연구모 형 적합도 지수가 우세하다. 마지막으로 모형 경로계수

의 통계적 유의성 결과를 확인한바, 경쟁모형의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채택되었다.

3.2.3 모형에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간의 관계에서 성폭 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완전매개모형인 연구모 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에 대한 경로 검증결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검증을 살펴보면 성폭력 허용도가 성 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 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구모형 내에서 성폭 력 허용도가 매개역할을 하게 되면 성폭력 인식도가 성 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간접 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인식도에서 성폭력 허용도로 가는 영향력 때문에 간접효 과가 더 유의해지게 된다. 따라서 경쟁모형방법을 통해

Table 2. Model Fit Summary

	χ^2	DF	P	GFI	TLI	CFI	RMSEA	AGFI
A Study Model (completely mediated model)	24.48	12	.017	.983	.986	.992	.05 HI/LO .08/.02	.959
Competition model (Partial mediated model)	23.75	11	.014	.983	.984	.992	.05 HI/LO .08/.02	.957

*** p<.001, ** p<.01, * p<.05.,

A Study Model: .RMR=.012, Competition model : RMR= .010,

Table 3. Unstandardized and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The variables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Standardized Estimate
A Study on Model(completely mediated model)	Sexual assault awareness,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0.382	0.051	-7.452	-.393***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0.304	0.049	6.181	.427***
Competition model(Partial mediated model)	Sexual assault awareness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0.38	0.051	-7.415	-.387***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0.286	0.054	5.325	.401***
	Sexual assault awar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0.037	0.041	-0.887	-.052

*** p<.001, ** p<.01, * p<.05.

더 적합하다고 채택된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을 [Fig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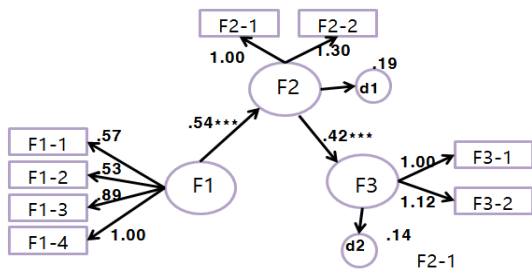


Fig. 3. A perfect model Sexual assault awareness,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Sexual violence experience

F1 : Sexual assault awareness, F1-1 : rape, F1-2 : sexual molestation, F1-3 : Sexual Harassment, F2: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1: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2-2: physical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F3: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1: Physic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F3-2: Verbal mental Sexual violence experience

3.2.4 변인들 간의 직접, 간접효과

매개모형에서 예측변인을 설명하는 효과는 두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예측변인에서 결과변인으로 바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Standardized direct effects)와 예측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서 결과변인으로 가는 간접효과(Standardized indirect effects)로, 이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에 한 결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성폭력 인식도에서 성폭력 허용도로 가는 직접효과(Standardized direct effects)는 -.39(p=.000)로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허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성폭력 허용도에서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가는 직접효과(Standardized direct effects)는 .43(p=.000)으로 성폭력 허용도 역시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 간에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하다. 이는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 피해경험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 성폭력 허용도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 경험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 이전에 측정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 그리고 성폭력 피해경험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성폭력 인식도가 높아야 성폭력 허용도와 성폭력 피해가 낮아진다는 결론이다. 이는 성폭

Table 4. Standardized Total Effects,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Categories	Standardized total effect	Standardized direct effects	Standardized indirect effects
Sexual assault awareness --->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39***	-.39***	
Sexual assault awar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17		-.17**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 Sexual violence experience	.43***	.43***	

력 피해 요인에 있어 성폭력 허용도의 영향이 크지만 성폭력 허용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성폭력 인식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1, 4]와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 예방에 영향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인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성폭력 허용도가 매개하는가? 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부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허용도가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1, 14]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며,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밀접하게 관련 있으며,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 인식도가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이다. 성폭력 예방 변수는 성폭력 인식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성폭력 허용도(.43, $p<.001$)가 예측변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성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의 경로모형(-.39, $p<.001$)을 볼 때 성폭력 인식도가 높으면 성폭력 허용도는 낮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이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스스로가 성폭력에 대한 지식, 이성에 대한 이해, 태도에 관련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을 때 성폭력 피해는 예방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 인식이 잘 형성되었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내려가서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성폭력 허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매체, 또는 선정적인 영상물을 보더라도 대학생들의 성폭력 인식이 잘 구성 되었을 때 성폭력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이다. 즉, 바른 지식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잘 적응함은 물론 올바른 판단과 더불어 대응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성폭력 인식도가 잘 정립된 대학생은 데이트 상황에서도 상대와 자신을 잘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성숙된 배려와 매너로 이성간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성역할 사회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4]. 예를들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폭력을 많이 접하는 남

인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진정한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여성인 경우 폭력을 쉽게 허용하게 된다[14]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sexuality)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갖고 있는 인격, 성격, 인생이 담겨져 있다[27]라고 하였다. 즉, 성기중심이 아닌 정신적인 성, 사회적인 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이다. 이는 남녀 상호관계에 따른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가르치고, 개인의 성장발달에 따른 성숙을 사회 윤리에 부합할 수 있게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이끌어 주는 인간교육을 하여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즉, 어릴 때 사회화 과정 중에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남성과 여성의 성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폭력 인식도가 낮을수록 성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kang and Lee[1]연구가 있고,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 허용도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1,2,9,14,20,21,22,23]들과 일치한다. 성폭력 허용도를 여성주의 입장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적 사회화와 성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남성을 적극적인 성적 행위자로, 여성은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 사회화시킴으로써 결국 남성과 여성은 잠재적인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7]. 이는 폴링(James N. Poling)의 성(性)권력 이론에 의해 설명하자면 데이트 관계 안에서 권력은 형성되고,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 힘이 남용에 의해 성폭력은 이뤄진다[28]고 하였다. 이러한 힘의 남용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성폭력 허용도와 성폭력 피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있지만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피해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를 연결시킨 연구는 모자라다. 따라서 대학생의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에서 무엇이 그들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인식도는 성폭력에 대한 감각, 강제추행, 성희롱과 같은 인지로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피해경험 간의 관계성을 보

다 정교화 시켰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폭력 인식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녀 대학생은 개인의 성폭력 인식도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인권적으로 성숙해지고, 정서적으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성의 평등한 교육이 되어 진다면 성폭력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인식도를 높이고 성폭력 허용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성폭력 허용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비록 과거에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포르노 영상물과 인터넷에서의 성지식을 읽히고 있는 실정[23]이더라도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성폭력 피해는 낮출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29]에 의하면 어린 시절부터 사회화 과정에서 가정내 성교육을 통해 성 가치관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시청할 지라도 성에대한 가치관 혼동이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교육은 성 가치관이나 성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인간 발달 단계에 따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는 성에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지식을 교육 받음으로서 성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서 보다 만족스럽고, 책임감 있는 관계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Lee, Eun-sook · Kang, Hee-sun.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4; 20(1): 48-56
DOI: <https://doi.org/10.14370/jewnr.2014.20.1.48>
- [2] Su-Hyun Jang · Sung-Hee Lee,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Permi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vol. 17, no. 4, December, 2011, pp. 395-406,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1.17.4.395>
- [3] Chang, Heesuk Cho, Hyungak.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8, 2001
- [4] JoongAng Ilbo, 2016-05-24(Tuesday), general news page, <http://news.joins.com/article/20072489>
- [5] Yun-Kyong Chang. A study on date rape experience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2002], Seoul
- [6] Jee Yon Lee · Eun Sul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sexual self-assertiveness scale for fem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7 , (2006), 47-62
- [7] Hyun-Mi Nam.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2003], Seoul
- [8] Hee-Soon Kang. Model Construction of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9], chonnam.
- [9] Kelly, J. (1978). Sexual permissiveness : Evidence for a theory. *Journal of the Marriage and the Family*, 40, 455-468.
DOI: <https://doi.org/10.2307/350927>
- [10] Reiss, I. L. (1967). The social context of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New York : Helt, Rinehart & Winston.
- [11] Sugarman, D. B. (1996). Risk marker analysis of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4).
DOI: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6.tb01852.x>
- [12] Yeo-joo Jung, Jeong-suk Kwon, Discussion and Debate of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 January (2016). pp. 189-196
- [13] Feild, L., Hubert,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 a comparative &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2), 156-17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36.2.156>
- [14] Shim, Chung-Sin · Lee, Young-Sook · Oh, Suk-He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 assault awareness and permissible limit in th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8(2), (2012) 117-125.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2.18.2.117>
- [15] White, S. D. & DeBlassie, R. R. (1992) Adolescent sexual behavior. *Adolescence*, 27(105), 183-191.
- [16] Whitebeck, L. B., Yoder, K. A., Hoyt, D. R., & Conger, R. D. (1999).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 A development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4), 934-947.
DOI: <https://doi.org/10.2307/354014>
- [17] Cooper, A., Morahan-Martin, J., Mathy R. M., & Maheu, M. (2002). Toward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user demographics in online sexual activities. *J Sex Marital Ther*, 28(2), 105-129
DOI: <https://doi.org/10.1080/00926230252851861>

- [18] Sun kyung Lee, Yong Hoe Heo, Sun Woong Park. The Effect of Gender and Age on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9(1), 2015.2, 65-81
- [19] So-Jung Yang, A study on the adolescents' Exposure to the Internet-Oriented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permissive attitudes : Focus on the O1-S-O2-R model application youth culture forum. vol. 26, 2011.
- [20] Jin Yoon, Sung-yeon Yang, Byung-Kum Park.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Patriarchal Gender Role Attitude, and Inferiority Complex on Acceptability of College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6, 2012
- [21] Dong-ouk Yang, Gahyun Youn. The Effect of Exposure to Sexual Stimuli on Aggressive Behavioral Tendency. social research, vol. - no. 14, pp. 75-98, 2007
- [22] Koo Hyun Young, Kim Seong Sook. Relationships among Cybersex Addiction,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 and the Allowance of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7, no. 7, 2007.
- [23] Hyeon Suk Lee, Byeong Hun Jeong , Young Hun Lee, Woo Suck Seong, Ji Oung Ha, Gyu Young Lee, Seung Hun Song, Min Kyeong Lee. A Study on the Level of Sex Educati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Allowa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culture of education, vol. 21 no. 3, pp. 231-252, 2015.
- [24] Hye Seop Shin · Hae Won Yang. The Predictors of sexual violence by adolescents: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 no. 15, 2005.
- [25] Foo L., Margolin G.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95;10 (4):351-377.
DOI: <https://doi.org/10.1007/BF02110711>
- [26] Herry Koh. An analysis of rape case perception difference: With special to sex-role stereotype, rape myths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07
- [27] Kim Mi-Suk. sexual education program gave an learning of sexual knowledge and how such information effected their sexual attitudes to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Consul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2006.
- [28] Kim, Seon-Hee. Christian Counseling for Fema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 Focused on the theory of James N. Poling-. Department of Theology Graduate School Unpublished, Docto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9.
- [29] Bryant, J., & Rockwell, S. C. Effects of massive exposure to sexually onented prime-time television programing on adolescents mpral judgement. In D. Zillman, J. Bryant, & A. C. Huston(Eds.), Media, Children and the Family(pp. 183~19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94.

강 차 선(Kang, cha-sun)

[정회원]



- 2003년 8월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06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 석사(상당심리)
- 2016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 박사 수료
- 2009년 2월 : 전) 제주 YWCA 여성의 쉼터 원장 역임

<관심분야>

교육학, 상담학, 성관련교육

정 민(Jung Min)

[정회원]



- 1981년 2월 : 연세대학교 이학사
- 1986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 석사
- 1994년 8월 : 연세대학교 이학박사
- 1986년 9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리더십, 의료윤리, 여성

염 순 정(Yoem, Soon-Joung)

[정회원]



- 2007년 8월 :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12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 박사 수료
- 2008년 4월 ~현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및 부설희망상담소 소장
- 2011년 3월 ~현재 : 제주관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애착관계, 가정폭력, 교류관계, 가족기능 등

박 정 환(Park, Jeong-hwan)

[종신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과(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
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